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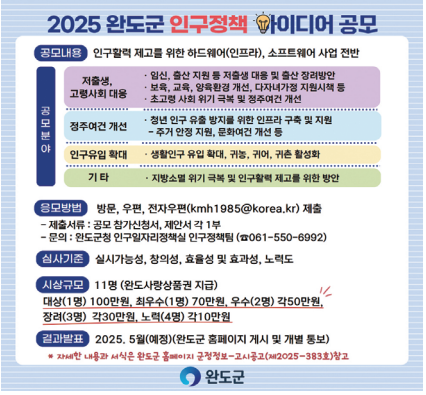
완도군, 인구정책 아이디어 4월 16일까지 접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정주 여건 개선 등 인구 활력 제고 방안

완도군이 '2025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자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모 주제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청년 지원, 생활 인구 유입 확대,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등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사

항이다.
완도군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는 완도군청 인구 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제2025-383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사업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효용

성,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상 1명(70만 원), 우수상 2명(각 5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노력상 4명(각 10만 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금 지급은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면서 "공모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크



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선우 기자

관광택시 봄맞이 반값 할인 이벤트 실시

순천시,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봄맞이 관광객을 위한 순천 관광택시 '봄맞이 반값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총 이용요금의 50%가 할인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할인 혜택은 순천을 방문하는 관외 관광객에게 제공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전화(061-749-2800) 또는 순천시 바로에 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순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봄의 순천은 따뜻한 날씨와 만개한 꽃들로 가득 차 있어 여행하기 최적의 시기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봄이면 톨립, 벚꽃, 철쭉 등 다양한 봄꽃들이 만개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며, 사진 촬영과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 꼽힌다.
또한, '동천&서천 벚꽃길'의 분홍빛 벚꽃 터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며 도



심 속 봄의 낭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벚꽃이 떨어질 즈음에는 '선암사'에 겹벚꽃이 만개해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특별한 풍경을 선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봄맞이 순천 관광택시 반값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방문하고,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순천의 다채로운 봄 풍경을 경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함평군 월야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성공 기원 홍보 활동 전개

지역 방문 홍보와 청결 캠페인 전개... 방문객 참여 독려

전남 함평군 월야면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함평군은 28일 "월야면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을 방문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축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월야면 직원들은 부안군 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 전단

을 배포하고 주요 행사 정보를 안내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앞서, 월야면은 청사에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해 방문객에게 축제 일정을 알리는 한편, 번역회와 이장 협의회를 포함한 각 기관·사회단체와 협력해 먼 시가지 일제 대청소를 진행하며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홍명희 월야면장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관심을 높이고 축제에 대한 참여를 끌어낼 것"이라며 "축



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12일간 함평역 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생태 전시, 문화 공연,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될 예정이다.
함평/전광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구례군 새마을회, 나무 심기 추진

구례군은 구례군 새마을회(회장 정연숙)가 지난 24일 광의면 대전리 일원 유희부지 2,000평을 비롯한 구례군 읍면 8개소에서 3,230그루의 나무 심기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흙 살리기 캠페인 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의 연장선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행사에는 김양규 새마을지도자구례군협의회장과 황운하 구례군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가 동참하였다.
정연숙 구례군새마을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쾌적한 녹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무안군, 임신부 맞춤 태교 프로그램 성료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7일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운영한 2025년 상반기 태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8일부터 총 4회 진행됐으며, 임신부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고루 살펴볼 수 있도록 실용적인 체험들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체력과 건강 완화를 돕는 임신부 요가 교실 ▲우울감 예방과 이해를 돕는 산후우울 관련 강의 ▲출산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태반이 만들기 ▲감성 태교와 힐링을 위한 라탄 공예 체험 등 다양한 내용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무안군 제공



곡성군,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실시

곡성군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신규 인증 희망 농가 및 갱신 농가 70여 명을 대상으로 옥과면사무소 월파관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전했다. '농산물우수관리(GAP)'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에 1회, 2시간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인증기준 및 절차, 실천요령, 위해요소 관리기준,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 등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곡성 농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